

주택경기 호황에 건설업 신규 등록 ‘최고’

울 광주 105개·전남 45개사...전국 1200개사 늘어

광주 미분양 2008년 1만3천가구서 7월 183가구로 급감

구도심 재건축·재개발 본격화...당분간 시장 호조 전망

최근 주택경기 호황을 타고 광주·전남 지역의 신규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내놓은 ‘2015년 주택공급 현황 및 향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지역 주택건설사업자 신규등록업체가 광주는 105개사, 전남은 45개사로 협회 창립 3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로도 올해 1200개사가 등록했으며 하반기에도 신규업체 등록이 이어질 것으로 협회는 분석했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회원사 수는 부동산 경기의 선행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단지마다 성공적인 분양이 이어지면서 신규사업자 등록이 늘고 공공택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7.8대 1을 기록한 가운데 광주는 평균 경쟁률이 58.5대 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외지 투자·투기 수요 유입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것을 우려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광주시 거주자로 청약 제한을 두기도 했다.

장기간 미분양 상태에 있던 아파트 물량들도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 2008년 12월 1만3000가구에 달했던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7월말 현재 183가구로 줄었다.

협회는 그동안 장기 규제에 묶였던 땅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면서 주택공급이 당분간 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광

주의 경우 신규택지 공급 중단과 재건축 가능여한 완화 등으로 그동안 담보상태에 머물던 구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주택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향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아파트 입주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 등 변수가 있으나 당분간 지역 주택경기 호황은 이어질 전망이다”며 “전세시장 안정, 지속적인 주택 시장 호황을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비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31.46 (-9.91) ▲ 금리 (국고채 3년) 1.67% (+0.01)
- ▼ 코스닥 662.88 (-6.99) ▼ 환율 (USD) 1183.10원 (-1.40)

광주시-유럽 3개지역 431만불 수출 협약

우즈베크 타슈켄트 등 청소차·온수매트·미용제품 판로 개척

광주시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비롯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유럽 3개 지역 시장개척 활동을 통해 총 84건 8300만 달러의 수출 상담과 함께 9건 431만 달러의 수출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지역 중소기업 7개사가 참여해 진행된 이번 시장개척 활동을 통해 쓰레기 수거차량, 복합PP, 전기온수보일러, 프레스 금형, 미용제품 등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

특장차량을 공급하는 (주)화인특장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청 청소과 담당공무원이 수출상담장을 직접 방문, 2016년도에 예정된 청소차 200대 입찰 참여를 당부했다. 수출이 성사될 경우 청소차 1대당 6500만원 총 1084만 달러(130억원)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가정용 전기난방기기 제조업체인 (주)금강생명과학은 주력 제품인 전기온열매트,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보일러 등으로 3개 지역 무역관 바이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들 3개 지역은 기존 건물들이 노후하고 난방시설 교체가 필요하지만, 건물물이 그대로 보존해야 함에 따라 기존 시설에 간편하게 조립·설치하는 전기

온수매트가 인기를 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화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전기 난방기기들이 온실 하우스에 적합한 제품으로 높이 평가를 받으면서 향후 기술 합작과 제품개발에 노력하기로 했다.

복합 PP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생산하는 팬케미칼은 총 6255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기능성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주)라피네제이는 수출상담회 현장에서 즉시 수출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유럽지역에서 경쟁력을 확인했고, 물류기지인 암스테르담에서는 화장품 신고제로 절차가 간소해 유럽지역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광동신부품 업체인 주식회사 우리로와 선일텔레콤(주)은 러시아 최대통신사인 로스텔레콤의 공급업체와 상담이 성사돼 향후 거래가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지 코트라와 기업체가 함께 바이어 발굴 등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이들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결과가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금호타이어 본교섭 또 결렬

노사 일시금 지급 이견 못 좁혀...파업 장기화

창사 이래 최장 파업과 직장 폐쇄로 버랑 끝 타지를 이어가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6일 만에 본교섭을 재개했으나 또 다시 결렬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4일 오후 2시 광주공장 별관 5층 단체교섭장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7명씩, 모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본 교섭을 가졌으나, 2시간이 채 안돼 협상은 결렬됐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2대 2 실무협의, 17차례의 본교섭, 두 번의 대표자 면담을 통해 임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으나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일시금 지급 규모와 무노동 무임금 보전 여부 등을 놓고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 왔고, 이날도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임금손실액이 1인당 300만원을 넘어서면 만큼 보전 방법으로 사측이 제시한 일시금 300만원에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한

반면 사측은 ‘장기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일시금 상향은 어렵다’는 원칙론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19차 본교섭은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와 신경전이 만만찮아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노조 관계자는 “현안에 대한 이견도 이견이지만 임금피크제를 일시금에 연동시켜 강행하려는 데 반발이 여전하다”며 “전향적 교섭안이 나오지 않는 한 타결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무노동 무임금 보전’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며 “파업은 모두의 피해만 키울 뿐이므로 노사 상호간 조건없는 파업 중단과 직장 폐쇄 해제가 우선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파업 중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추석용품 10~20% 싸게 사세요”

농협광주본부 직거래장터 운영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근)는 추석연휴(26~29일)를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연다.

광주지역 하나로 마트 6곳, 광주시청 로컬푸드 1곳, 광주지방경찰청·검찰청 2곳, 금요직거래장터 1곳, 광주지역본부 1

층 로비 등 총 11곳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개장한다.

이들 직거래장터에서는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과 추석 제수용품 등을 시중가보다 10~2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과 협력해 청사주자장 및 유희공간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오광록기자 kroh@



“추석 선물, 광주신세계서 실속있게”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가 오는 25일까지 고급 전통식품과 실속형 중저가 상품 등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광주세관, 추석 성수품 ‘신속 통관’

24시간 특별지원반 가동

광주세관은 민속명절인 추석절을 맞아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세관은 이번 추석 성수품 신속통관 지원과 관세 환급금 선지급 및 납기연장 등 특별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수출입 화물의 적기 공급과 업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공휴일 및 야간에도 상시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해 신속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

산물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우범성이 없는 수출용 원재료, 제수용품, 생필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최소화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입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환급 신청 건은 당일내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추석 연휴 이후에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세 환급을 지원키로 했다.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4년도 납부세액의 30%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 최고의 마진
- ▶ 최소의 창업비용
-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옥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

www.dvtc.co.kr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기존 인터넷 회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 현장 상황 CCTV
- 안내방송
- 기계동작소리 청취
- 상태감지
- 계측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 펌프장
- 배수장
- 양만장
- 배수갑문

특장점

-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 일반업체가 케이블만 연결하면 공사완료
-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 낙뢰, 통신두절시 자체 차단 및 복귀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 양수장
- 저수지
- 골포장
- 상하수도

NAVER 물관리자동화 D+M 물관리자동화

주식회사대영 daeyoung ☎(062) 670-0300